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 3:10-11]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그의 성육신(成肉身), 그의 독특한 인격, 그의 속죄사역, 그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깊고 신비하다.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사건이었다. 그의 부활체는 장차 성도의 부활체와 영생할 몸의 모습이였다.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나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도 고난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듯이, 우리 모두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좃아가노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이다. 그것은 육신적, 도덕적 완전 상태, 곧 완전 성화 상태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이 남아 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하여 달음질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좃아가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런 몸의 구속(救贖)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복이다.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 그 구원은 법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義)는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위해 현재 성화(聖化)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22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였고, 갈라디아서 6:8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였다.

[13-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이다. 누가복음 10:42의 전통사본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요한복음 6:27, 29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가지 일은 앞에 있는 쫓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1) ‘상’이라는 원어(브라베이온)는 경주장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 같은 상을 가리킨다(고전 9:24). 그것은 신앙의 기본적 달음질의 결과로 약속된 상이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빈번히 나오는 ‘보상, 값, 대가의 개념인 ‘상’이라는 원어(미스도스)와 구별되는 것 같다.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이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얻은 의(義)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 즉 '완전 성화'이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한다. 성도는 잘한 일든지 못한 일든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도는 지나간 날들에 잘못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도는 오직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성경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원어(텔레이오이)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6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말했다. 성도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법적 완전이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해졌다. 히브리서 10:14, "제가 한 제물로 기록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물론, 이 완전은 실제적인 완전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1:28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하였다. 성도가 법적으로 얻은 완전한 의(義)는 자만(自滿)이나 나태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무엇을 얻었거나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즉 도덕적 완전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한다(벧후 1:10).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재(전통사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聖化)의 정도가 어떠한지 간에, 우리의 인격 형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간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나태하거나 헤이해 지지도 말고 오직 신앙의 목표인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즉 완전 성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이며 완전 성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다. 우리에게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한가지뿐이다. 그것은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완전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을 중시하신다. 우리는 지금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 즉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지취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즉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복되고 영광스런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의를 얻었고 기록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인격과 삶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 주일오후설교 |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계 2:12-13]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죄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는 '죄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묘사되신다. 1:16은 그 검이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한다. 그 '죄우에 날선 검'은 그의 예리한 말씀, 즉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 영혼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우에 날선 칼과 같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주께서는 죄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바른 건립은 영적인 전쟁과 같다. 마귀와 불신앙과 비진리를 대항해 싸울 이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도" 하며 성경말씀을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기록된 성경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버가모는 사탄의 위(位)가 있는 곳, 곧 우상숭배의 총본부와 같았다.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의 신전과 아테나 여신의 신전과 디오니소스 신의 신전 외에, 뱀 모

양의 의술의 신 에스쿨라피우스 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한다. 황제 숭배는 초대교회 시대인 로마 시대에 보편적 풍조이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켰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의 충성된 증인 혹은 순교자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순교자 못지 않게 충성된 자일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께서는 그의 믿음과 행위를 아셨고 그를 인정하셨고 칭찬하셨다.

**[14-15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주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책망도 하셨다. 우리에게 칭찬거리가 있으면 그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책망거리가 있으면 그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책망은 그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한 한 방책을 일러준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들로 모압 여자와 행음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한 제물을 함께 먹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민 25:1-3).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었다(민 31:16). 이와 비슷한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교회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할 우상숭배는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숭배와, 종교다원주의의 이방 종교 관용이다. 우상숭배의 용납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큰 잘못이다. 오늘날 교회는 또 음행을 경계해야 한다. 현대 사회와 문화는 심히 음란하다. 오늘날 교회에는 심지어 동성애와 동성애자 결혼, 그리고 동성애 목사까지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목사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인들을 그 교훈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가 회개할 죄이었다. 만일 목사가 회개치 않는다면, 주께서는 그 교회에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교회가 권징을 회피한다면 주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교인들 중에서 죄 지은 자들에게 직접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주께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는 말씀을 보면 주의 입의 칼은 심판의 칼인 것처럼 보인다. 주님의 직접 개입은 목사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다. 그가 돌보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직접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의 목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목회라 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상급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그는 교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천국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 같다. 시편 78:24-25,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누릴 사랑의 식탁 교제를 가리킬 것이다. 또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옛 시대에 흰 돌은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에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 시에나, 큰 잔치에 입장할 때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과연 장차 우리가 받을 흰 돌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다. 그 흰 돌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無罪) 혹은 의롭다 하심의 판결을 받을 자들과,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새 이름은 구원받은 자가 이마 천국에서 사용할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복된 신분과 영광을 나타낸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탄

의 위(位)가 있는 곳,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사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대환난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숭배와 음행의 악을 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시대는 배교와 티협과 혼돈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교리적, 윤리적 죄악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을 정죄하면서 죄악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수요일 설교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습 3:1-2] 패역하고(모레아)[반항적이고](BDB, NASB, NIV)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쿨)[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반항적이었고 또 더러웠고 포악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런 온갖 죄악이 가득했다.

[3-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포카집)[경박하다](Langenscheidt, KJV), 무모하다(BDB, NASB), 거만하다(KB, NIV) 간사한(보게 도스)[배신적이며 행한, 불신실하게 행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유다의 방백들 즉 고위 관리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았고, 선지자들은 인격이 경박하고 무모하고 거만하고 불신실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하지 않으므로 성전예배를 더럽혔다.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

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며 그들 중에 거하시어 항상 의를 나타내시고 행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다.

[6-8절] . . .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레아드)[약탈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소멸될 것임이]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의 날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보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날이 있다. 그 날에 그는 일어나 악한 자들로 약탈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심판하시기 위해 뜻을 정하셨다. 그는 그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유다 땅에 쏟으시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실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연합군을 가리켰다고 보인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유다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적이었고 더러웠고 거칠고 포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불의의 이익을 취하였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경박하고 불신실하였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유다 백성은 다 불의하였고 수치를 알지 못했고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혔다. 우리는 이런 죄악들에서 떠나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열국을 황폐케 하시고 망대들을 황무케 하시고 거리에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성읍들을 황폐케 하실 것이며 또 역사상 그렇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작정되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열국을 소집하실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을 두려워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고 그의 속죄의 피로 죄씻음을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소망하며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